

A3. 대표 특성

A3-1. 성별	① 남	② 여	
A3-2. 연령(현재)	만	세	
A3-3. 최종학력(현재)	① 박사 ④ 전문학사	② 석사 ⑤ 고졸	③ 대졸 ⑥ 중졸 이하

A4. 근로자 특성

A4-1. 총 근로자 수(비정규 포함)	() 명
A4-2. 남녀고용자 수	남성 () 명 여성 ()명

B1. 귀사의 현재 주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

- ① IoT
- ② Cloud Computing
- ③ SNS and Mobile
- ④ Big Data and Analytics
- ⑤ Robotics and Smart Machines
- ⑥ 원격관리
- ⑦ 기타()

B2. 귀사의 제품/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국내 유일기술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 (거의 100% 수준)	약간 미흡 (80% ~ 99% 수준)	미흡 (60% ~ 80% 수준)	경쟁 열세 (60% 이하 수준)
1	2	3	4	5

B3. 귀사의 제품/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유일기술	최고수준과 동일 (거의 100% 수준)	약간 미흡 (80% ~ 99% 수준)	미흡 (60% ~ 80% 수준)	경쟁 열세 (60% 이하 수준)
1	2	3	4	5

B4. 귀사는 자체 연구개발 관련 기술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②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 ③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 보유
- ④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음

B5. 귀사는 다음 경영상 애로사항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B5-1. 추가적인 신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B5-2.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어렵다.	1	2	3	4	5
B5-3. 새로운 국내 판로개척이 어렵다.	1	2	3	4	5
B5-4.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1	2	3	4	5
B5-5.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 조직관리가 어렵다.	1	2	3	4	5
B5-6.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가 어렵다.	1	2	3	4	5
B5-7. 기술유출·디자인도용·상표도용 등을 막기가 어렵다.	1	2	3	4	5
B5-8.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 등 경영정보화가 어렵다.	1	2	3	4	5
B5-9. 업계 내의 과다경쟁 및 덤핑으로 어렵다.	1	2	3	4	5
B5-10. 거래기업의 휴·폐업으로 자금회수가 어렵다.	1	2	3	4	5
B5-11.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렵다.	1	2	3	4	5
B5-12. 사업장을 설립(또는 증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렵다.	1	2	3	4	5
B5-13. 낮은 수익률 및 마진율로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B5-14. 환율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B5-15.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C1. 다음의 기술 중 향후 5년간 (신)디지털산업에서 가장 각광받을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IoT
- ② Cloud Computing
- ③ SNS and Mobile
- ④ Big Data and Analytics
- ⑤ Robotics and Smart Machines
- ⑥ 원격관리
- ⑦ 기타()

C2. 귀사는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향후 어떤 기술을 강화하고 싶습니까? ()

- ① IoT
- ② Cloud Computing
- ③ SNS and Mobile
- ④ Big Data and Analytics
- ⑤ Robotics and Smart Machines
- ⑥ 원격관리
- ⑦ 기타()

C3. 향후 5년간 가장 비즈니스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술은? ()

- ① IoT
- ② Cloud Computing
- ③ SNS and Mobile
- ④ Big Data and Analytics
- ⑤ Robotics and Smart Machines
- ⑥ 원격관리
- ⑦ 기타()

C4. 향후 가장 유망한 신디지털산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동차
- ② 물류
- ③ 바이오 및 의료
- ④ 전기 및 전자
- ⑤ 화학 및 재료공학
- ⑥ 항공우주
- ⑦ 기계공학
- ⑧ 기타()

C5. 신디지털산업 부문에서 현재 한국 ICT기업에 가장 부족한 기술은? ()

- ① IoT
- ② Cloud Computing
- ③ SNS and Mobile
- ④ Big Data and Analytics
- ⑤ Robotics and Smart Machines
- ⑥ 원격관리
- ⑦ 기타()

D1. 다음 중 서울시의 신디지털산업부문에서 향후 가장 각광받을 분야 두 개를 골라 주세요. ()()

- ① IoT 서비스
- ② 웨어러블 기기
- ③ 모바일 게임 및 콘텐츠
- ④ 서비스 인터페이스(Big Data & Cloud and Analytics)
- ⑤ 교육 및 금융(e-learning & Fin-Tech)
- ⑥ 의료융합 분야(스마트 헬스케어 포함)
- ⑦ 플랫폼 형태의 종합스마트홈 서비스
- ⑧ 기타()

서울시 최신 디지털산업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15. 11. 23 ~ 2015. 1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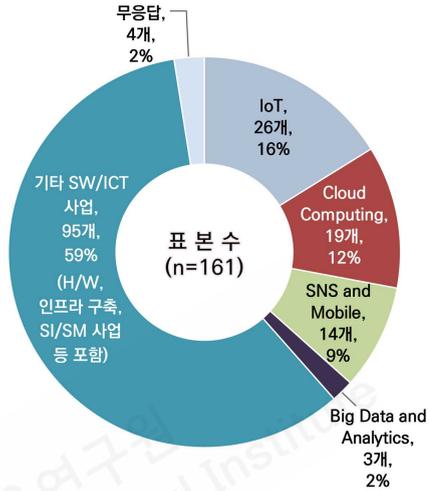
● 조사 대상자 : 응답자의 사업영역 분포

● 조사 대상 : 서울/수도권 디지털산업 SW/ICT 사업체

[응답기업의 주력 사업 영역]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IoT	26	16.1
Cloud Computing	19	11.8
SNS and Mobile	14	8.7
Big Data and Analytics	3	1.9
기타 SW/ICT 사업 (H/W, 인프라 구축, SI/SM 사업 등 포함)	95	59.0
무응답	4	2.5
합계	161	100.0

- 본 조사에서 설계한 미래형 디지털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적용하고, 기타 SW/ICT 서비스 기업도 과반수를 반영함
- 총 161개의 유의한 데이터 수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록 기업 대상 배포)



[부록 그림 2] 설문조사 개요

국내의 경쟁위치에 대한 인식			글로벌의 경쟁위치에 대한 인식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국내 유일기술	7	4.3	세계 유일기술	7	4.3
국내 최고수준(100%)	36	22.4	세계 최고수준(100%)	34	21.1
약간 미흡(80~99%)	42	26.1	약간 미흡(80~99%)	79	49.1
미흡(60~80%)	66	41.0	미흡(60~80%)	35	21.7
경쟁열세(60% 이하)	6	3.7	경쟁열세(60% 이하)	2	1.2
무응답	4	2.5	무응답	4	2.5
합계	161	100.0	합계	161	100.0

- 응답기업의 3/4 정도인 75%가 국내 경쟁기업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미흡한(80% 내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현 사업체제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됨

- 현 사업 아이템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도리어 일부 영역에서 국내 경쟁력이 세계 역량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미흡'~'약간 미흡' 간 점수 차이 있음)

주요 시사점

국내 시장에서 타 경쟁기업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설정된 목표 시장이 Niche Market의 형태에 기인하고 있음

[부록 그림 3] 서울시 최신 디지털산업 업체의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

자체 연구개발 가능역량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부설연구소 보유	84	52.2
전담부서 보유	18	11.2
전담인력 보유	43	26.7
역량 미보유	12	7.5
무응답	4	2.5
합계	161	100.0

• 현 SW/ICT서비스 기업에 대한 미래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자체적 R&D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응답자의 50% 상회
 • 이는 현 SW/ICT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이 R&D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SW/ICT산업의 육성을 전담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지원 사업은 지원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기업참여 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산출물에 대한 지재산 공동소유'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소 SW기업 육성에 초점
-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같이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된 협회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과 인건비 산정 등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R&D 지원, 시범/실증사업 등과 연계되어 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에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도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음

주요 시사점 서울/경기 지역(국내 전체로 봐도 무방함)의 SW/ICT기업은 R&D지원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확대하고 있음

[부록 그림 4] 서울시 최신 디지털산업 업체의 연구개발역량

주 사업분야	애로사항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영업			경영관리				IP(지재산)		
		신기술 개발	사업화	판로 개척	수익률	해외 시장	인력/조직	경영 정보화	시설 확대	자금	지재산 관리	법률	특허 분쟁
IoT	평균	3.6	3.3	3.1	3.5	3.7	3.5	3.2	2.8	3.0	2.6	3.3	2.4
	빈도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Cloud Computing	평균	3.7	3.7	3.1	4.1	3.6	3.5	3.3	2.7	3.1	3.6	3.3	3.3
	빈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SNS and Mobile	평균	3.5	3.8	3.4	4.9	3.8	4.5	3.0	2.6	3.7	2.8	2.9	1.9
	빈도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Big Data and Analytics	평균	4.0	3.7	4.0	4.3	3.7	4.3	3.7	2.0	3.0	2.7	4.0	1.7
	빈도	3	3	3	3	3	3	3	3	3	3	3	3
종합	평균_항목	3.7	3.6	3.4	4.2	3.7	4.0	3.3	2.5	3.2	2.9	3.4	2.3
	평균_영역	3.6		3.5			3.0				2.6		

주요 시사점 사업아이템에 따라 애로사항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1) 비즈니스의 수익률, 2) 인력조직, 3) 해외시장 개척과 신기술의 비즈니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지원이나 자금보다는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화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부록 그림 5] 사업분야별 애로사항 분야

미래에 각광받을 디지털 기술		
기술 영역	빈도(개)	비율(%)
IoT	67	41.6
Big Data and Analytics	31	19.3
Robotics and Smart Machines	30	18.6
Cloud Computing	21	13.0
SNS and Mobile	12	7.5
합계	161	100.0

• 응답기업은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로 IoT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를 뽑았고(41.6%), 그 외 Big Data & Analytics(19.3%), Robotics and Smart Machines(18.6%) 등으로 응답
• SNS & Mobile 서비스는 7.5%에 그침

- 전통적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ICT가 연계하여 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영역은 향후 미래 SW/ICT를 활용한 디지털 산업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의 핵심이 IoT(Internet of Things)
- 서비스 수혜자가 생성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의 중심에는 Big Data Analytics가 있음
- 또한 감소하는 제조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Robotics와 Smart Machines의 사업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들은 모두 Cloud 방식의 서비스를 기본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있음

주요 시사점 SW/ICT 기업들은 emerging tech로 IoT와 Big Data Analytics를 손꼽고 있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기술로는 Robotics & Smart Machine, 그리고 Cloud Computing 서비스 플랫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그림 6] 미래에 주목받을 최신 디지털기술

디지털 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 필요 분야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Big Data and Analytics	54	33.5
IoT	46	28.6
Cloud Computing	22	13.7
기타	20	12.4
SNS and Mobile	16	9.9
Robotics and Smart Machines	3	1.9
합계	161	100.0

• 현 사업 체계에서 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Big Data Analytics와 IoT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함
• 이 밖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효과적 기술로 인식하고 있음

- 점차 소프트웨어와 ICT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과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사용자, Machine, 거래 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이러한 Big Data가 적용되어 new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별 IoT 활용 아이템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함
- 한편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별도 시스템 구축 비용을 들이기보다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Cloud Service 플랫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대로 Mobile Service의 효과적 구현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 요구됨

주요 시사점 SW/ICT 기업들은 미래 시장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IoT, Big Data Analytics, Cloud Computing, 그리고 SNS and Mobile 서비스 등을 꼽음. 이러한 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지원 체계도 우리 SW/ICT 기업의 체질 변화와 경쟁 우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부록 그림 7] 디지털산업 역량 강화 필요 분야

향후 도움이 될 디지털 기술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Big Data and Analytics	56	34.8
IoT	45	28.0
Cloud Computing	26	16.1
SNS and Mobile	22	13.7
Robotics and Smart Machines	12	7.5
합계	161	100.0

•향후 SW/ICT 영역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중요하고 신 사업 기회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Big Data Analytics, IoT, Cloud Computing 등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SW/ICT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의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 전달 체계도 강화시킬 수 있음이 증명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SW/IC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CES 2016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스마트 자동차, 3D 프린터, 3D 콘텐츠, 에너지 등 미래 사용자 이슈와 관련된 영역을 SW/ICT 기반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음
- 이를 위한 핵심 기술로 제기되는 것은 M2M(Machine to Machine), M2P(Machine to People) 등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임

주요 시사점

산업 간 컨버전스, 리이미제이션(re-imagination)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향상(improvement) 수준이 아닌 혁신(innovation) 기반 전략이 요구되며, 이의 중심에는 SW/ICT 기술(IoT, Big Data Analytics 등)이 있음

[부록 그림 8]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최선디지털기술 분야

한국 SW/ICT 부족 역량/기술		
사업 영역	빈도(개)	비율(%)
Robotics and Smart Machines	54	33.5
Big Data and Analytics	46	28.6
IoT	30	18.6
Cloud Computing	15	9.3
기타	15	9.3
SNS and Mobile	1	0.6
합계	161	100.0

•유망분야인 Big Data Analytics, Robotics & Smart Machines, IoT 등에 대해서 한국의 SW/ICT 기업의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스마트 팩토리 등과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ICT의 도입이 시급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Robotics & Smart Machines 기술이 강화해야 할 것으로 도출됨
- 또한 응답기업 상당수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영역인 Big Data Analytics 영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력 보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무인 시스템,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으로 나타나는 IoT, Big Data Analytics, 그리고 Cloud Computin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시사점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 중 한국이 급히 확보 혹은 강화해야 되는 기술로 Robotics & Smart Machines, Big Data Analytics 그리고 IoT로 나타났음

[부록 그림 9] 한국의 SW역량 부족 분야

서울시 육성 고려 디지털 산업분야		
유망 분야	빈도(개)	비율(%)
IoT 서비스	96	30.0
의료융합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포함)	65	20.3
서비스 인터페이스 (Big Data and Analytics)	62	19.4
플랫폼 형태 종합스마트홈 서비스	45	14.1
웨어러블기기	23	7.2
교육 및 금융(이러닝 & 핀테크)	17	5.3
모바일 게임 및 콘텐츠	10	3.1
기타	2	0.6
합계	320	100.0

•서울시가 육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업으로 IoT, 의료 융·복합,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등이 나타남
•빈도에 중복응답 반영

- 응답기업 상당수(29.8%)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으로 IoT 서비스를 제시함
-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의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IoT에 대한 이슈는 Hot Tech로 인지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웰니스 등 의료 융복합 영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집중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Big Data Analytics, 스마트홈, 웨어러블 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기대함
- 응답기업은 서울시의 전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IoT, Big Data 연계를 통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나 SI(시스템 구축), SM(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점차 서비스 중심(service-driven)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음

주요 시사점 응답기업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육성해야 될 핵심 사업으로 IoT, 의료 융복합 서비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을 기대하고 있음

[부록 그림 10] 서울시가 육성을 고려해야 할 디지털산업분야

정책적 지원 희망분야		
희망 지원분야	빈도(개)	비율(%)
중소기업 지원정책	66	41.0
정책적 투자지원 확대	60	37.3
원활한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20	12.4
판로 지원	8	5.0
교육 지원	5	3.1
기타	2	1.2

•응답기업은 중소기업 중심적 투자와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투자에 대한 강화가 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애로사항 분석에서 나온 다양한 기대사항 중, 사업화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R&BD 지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과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단순 마케팅 지원이나 교육/세미나의 형태보다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조직/센터 등이 구축되어 SW/ICT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 시사점 응답기업은 간접적 지원보다 직접적으로 사업화와 관련된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

[부록 그림 11] 정책적 육성지원 희망 분야

정책지원사업 우선 선호도

유망 응용기술	빈도(개)	비율(%)
다양한 시범사업	76	24.5
전통산업 디지털화(융합산업)	73	23.5
대대적 규제완화	60	19.4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베드 지원	53	17.1
저렴한 오피스 공급	48	15.5
합계	310	100.0

- emerging tech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이 기대하는 것으로는 결국 시범사업과 기존 산업의 연계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제품 제작 및 시험환경 구축으로 나타남
- 빈도에 중복응답 반영

- 응답기업 상당수(24.5%)가 신성장을 위한 디지털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실증에 기반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새로운 사업아이템의 확보를 전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출몰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슈를 규제로 해결하기보다 시제품 제작 및 시험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편익을 사용자가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람

주요 시사점

전통산업과 ICT/SW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이슈를 규제로 해결하기보다 실증과 시험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공급자, 사용자 간 생성되는 건전 생태계를 조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함

[부록 그림 12] 서울시 최신 디지털산업 업체들이 희망하는 정책지원 방향

서울시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FGI 분석

[부록 표 1] 인터뷰 조사 개요

FGI 일정	<p>12.09(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봉제산업, 인쇄출판산업 FGI 실시 · 성북봉제산업협회, 대한인쇄문화협회 관계자, 주요 업체 대표 등 <p>12.10(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문화관광산업 FGI 실시 ·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컨설팅 전문가, 문화부 관계자, 한국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위원 등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산업 디지털화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전통산업 디지털화의 미래 모습 · 전통산업 디지털화 요소의 실현 가능성 · 전통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성공전략 및 핵심 고려사항 모색

[부록 표 2] FGI 대상 전통산업의 선정

서울시 6대 창조산업	1차 선정의 근거	최종 선정
1. 도심제조업	도심제조업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디지털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분화 산업 분류	봉제/패션 인쇄/출판
2. 문화콘텐츠업	콘텐츠업은 디지털산업 대상이므로 제외	-
3. R&D	디지털산업 대상이므로 제외	-
4. 관광·MICE	명칭의 단순화를 위하여 통합하여 관광산업으로 조사	문화관광
5. 바이오·의료	디지털 기술산업의 핵심 적용분야이므로 전통산업에서는 제외	-
6.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전통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추가 사항	6대 창조산업 외, 사회적 이슈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타진	골목상권(시장)

봉제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봉제 산업의 경우,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장이면서 단순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형태가 다수이기 때문에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패션부문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부문은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과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패션부문은 기존에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아날로그식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 생산-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패션은 유행에 민감해서 접근하기 쉬운 매체(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패션만큼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문도 없을 것이다.”(업체 인터뷰 내용 중)

패션과 봉제 분야는 각각 산업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패션 분야는 O2O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주문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생산 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자인-생산-유통-마케팅-판매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반면에 봉제 분야는 수많은 영세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러스터의 규모를 키워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인쇄출판의 경우, e-book과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종이에 의한 인쇄출판방식은 사양화되는 추세다. 그렇지만 최근에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힘입어 다품종 소량생산(맞춤형 인쇄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문량이 많지 않고,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업체 인터뷰 내용 중)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맞게 인쇄와 출판 부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의 니즈 분석 선행이 디지털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 소재 사업체의 경우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인쇄출판 클러스터(Cluster) 조성을 제시하였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디지털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 수준은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통시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시장 홈페이지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서울시의 지원 인력이 대신 운영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화의 현실이다.

골목상권의 디지털화 방안으로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 트렌드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과 기기 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점포 위치 및 주차장시설 안내와 상품 정보 등을 비콘기술과 모바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O2O 공동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문화관광 산업은 관광시설에 대한 위치 및 상세 정보 등 디지털화를 위한 콘텐츠가 풍부하며, 이에 따른 디지털화 역량도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디지털화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문화관광 산업의 성패는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진 서울시는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ICT 기술(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관광트렌드의 핵심은 문화, 사람, 역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연계에 있다. 향후 스포츠 관광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예전의 관광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중심이지만, 미래의 관광은 지역의 삶, 문화, 역사와 연계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화이다”(전문가 인터뷰 내용 중)

문화관광 산업의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